

# “23년만에 독주회 못 연 지난해, 무대 소중함 느꼈죠”

### 올해 연주회 재개한 피아니스트 박수영 “유종의 미 거둘 때까지 계속”

#### 1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바흐 ‘이탈리안 콘체르토’, 리스트 곡 등 연주

피아니스트 박수영(57)씨는 지난 1986년 제1회 독주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7번이나 리사이틀을 열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 중 박 씨처럼 매년 독주회를 갖는 이는 거의 없다. 매년 연주할 새로운 레퍼토리를 짜고 연습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늘 행복이었다. 피아노협주곡 협연무대에 꾸준히 가져왔고 지난 2019년에는 한 무대에서 그리그와 슈만의 피아노협주곡을 동시에 연주하는 이색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그녀가 23년만에 처음으로 연주회를 갖지 않은 해였다. 지난해 10월 독주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를 했었지만 상황이 악화돼 취소됐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좋지 않지만 공연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박 씨는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28번째 공연을 통해 다시 독주회의 여정을 이어간다.

“1년 동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여전히 무대를 기다려주는 관객들을 위해 올해는 연주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생기가 넘치는 스페인을 만날 수 있는 곡들을 준비중입니다. 코로나 19로 여행길이 막힌 지금 예전에 찾았던 여행지의 추억을 자주 떠올렸고 그곳에 다시 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무대를 기획했습니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흐의 ‘이탈리안 콘체르토’, 리스트 ‘단테를 읽고’, ‘스페인 랩소디’, 알베니스 ‘에베리아 1권’ 등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박 씨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꿈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전남대 음악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거쳐 피아노가 자신의 길이라는 생각에 꾸준히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6살이었던 1998년 프랑스에 가기로 결심했다. 좀 더 나은 실력을 위해 파리 콘서바토리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했지만 한국에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홀로 떠나는 유학길이었기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그는 프랑스에 다녀온 후 국내 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다양한 무대에 서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부터는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불가리아 슈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프 등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줬다.

“지금 생각하면 오케스트라와 협연은 어떻게 했나 싶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 섭외는 지휘자 변욱 선생님께서 맡아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집 방 하나를 방음작업을 해 연습실로 쓰다 보니 연습에 공간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오케스트라가 내한하면 국내 공연 일정에 맞춰서 제가 서울, 부산 등을 찾아가 연습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했어요. 국내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공연 전에 연습실을 따로 마련해 연습을 했어요.”

그는 독주와 협연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박 씨는 “독주는 내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곡을 계속 혼자서만 연주해야하니 외롭기도 하다”며 “반면 협연은 여러 사람들과 조율해야 하고 맞춰가야 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재밌다”고 말했다.

“협연이 독주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피아노만의 에너지가 오케스트라를 압도하고 관객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도 해야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도 막상 오케스트라와 같이 무대에 오르면 든든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못하는 것 처럼 음악도 사람들과 함께해야 시너지가 배가 되는 것 처럼요.”

그는 적지만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는 관객들을 위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독주회를 열 생각이다.



피아니스트 박수영이 오는 15일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28번째 독주회를 연다.

“연제가부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연주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꾸준히 무대를 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관객분들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전각과 현대서예의 만남전’

담헌서예원 어묵회-제주전각학연구회  
제주문화예술회관서 8일까지 교류전

자유롭고 활발한 현대서예와 작은 공간에 우주와 자연, 인간의 삶을 조형하는 전각이 어우러졌다.

담헌서예원 어묵회(회장 박익정)와 제주전각학연구회(회장 김지웅)의 교류전이 오는 8일까지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전각과 현대서예의 만남전 II’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의기투합, 광주 예술의 거리 관선재 갤러리에서 열었던 교류전에 이은 두번째 전시다. 두 단체는 10여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오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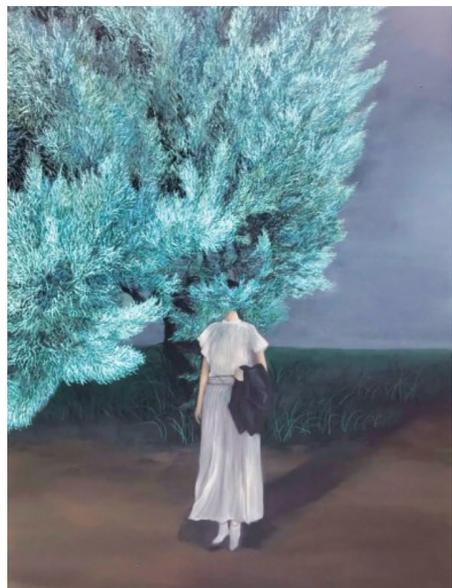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광역주-김동현·김문태·김산순·서원표·박의정·서현희·유경숙·윤혜숙·이주옥·이흥홍·정만위 등 어묵회 회원 16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담헌 전명옥 선생도 작품을 출품했다. 제주전각학연구회에서는 김성훈·부희경·오장순·황재오·김재정·조길재·한연숙 등 11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전시에서는 전통서예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현대서예와 다채로운 전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익정 작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 ‘그 곳에 누군가 있었다’

‘갤러리 리채’ 청년작가 지원전, 7월 2일까지 노은영 작가 작품 전시

갤러리 리채(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663번길 23 엘리빌딩 1층)는 지역 젊은 작가 발굴을 위해 오랫동안 청년작가 지원전(창작 지원금 300만원)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노은영(32·회화), 하승환(30·회화), 문창환(31·미디어) 작가를 선정하고 릴레이 전시를 개최한다.

노은영 작가가 릴레이전의 스타트를 끊는다. 오는 7월2일까지 관람객을 만나는 노 작가는 ‘그 곳에 누군가 있었다’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노 작가의 작품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커다란 나무에 얼굴을 반쯤 가린 여인의 모습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 것일까 마음 쓰고 나무에 기대 곱씹히 생각에 잠긴 마스크를 쓴 남자에게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또 사람을 차분하게 하는 무채색 계열의 두터운 붓질이 작품에

무게감을 더하는 것도 특징이다.

수많은 생각들을 합치고 해체하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고 말하는 노 작가는 “나의 20대 시절 작업이 현대인의 욕망을 도시에 투영해나가는 것이었다면 30대의 작업은 자연에 대한 나의 주관적 관심과 우리의 관심까지를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됐다”며 “특히 사적 개개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 징후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조선대 미술대학 미술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한 노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5·18 40주년 기념 각자의 시선’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블루 아트 페스타’ 전시기획자 모집

전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전남의 시각예술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한 ‘블루 아트 페스타’ 전시기획자를 공개 모집한다.

‘블루 아트 페스타’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남도예술은행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작품을 구입·판매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남만의 미술판로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블루 아트 페스타’는 오는 10월 14일 - 19일 여수장도 전시관 뿐 아니라, 섬 내 전시 가능한 모든 곳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열릴 예정이다.

전시기획자는 전시 주제와 참여 작가, 작품 선정, 부대 프로그램 구성 등 ‘블루 아트 페스타’를 총괄 기획하고 주요 업무를 맡는다. 응모 자격은 전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각·공공 예술 분야 전문가다. 역량과 성장가능성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미술시장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로 지역 작가들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서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